

여론조사꽃 제40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REPORT #202305_04

ARS+CATI

제38차 ARS조사

제23차 CATI조사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제40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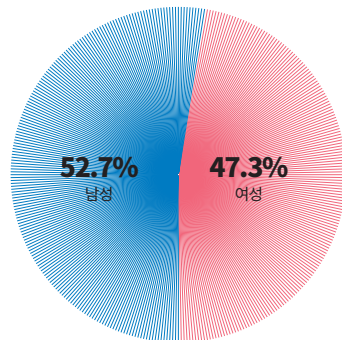
ARS & CATI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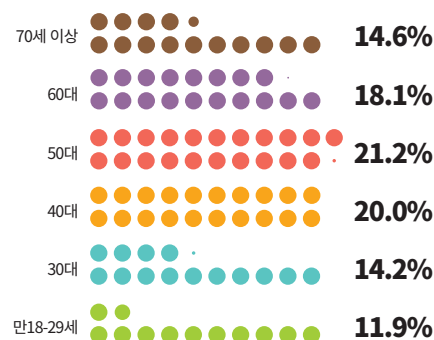
| | |
|-------|--|
| 모 집 단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
| 표본크기 | 1,026명 |
| 표본오차 | ±3.1%포인트(95% 신뢰수준) |
| 표집방법 |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
| 조사방법 |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
| 가중방법 | 행정안전부 2023년 4월 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
| 응답률 | 2.5% [총 통화시도 40,781명] |
| 조사기간 | 2023년 5월 19일 ~ 5월 20일(2일간) |
| 조사기관 | (주)여론조사꽃 |

| 응답자 특성 | 조사완료 사례수(A) | | 가중값 적용 기준(B) | | 가중값배율 (B/A) | |
|-----------|-------------|-------|--------------|-------|----------------|------|
| | 사례수(명) | 비율(%) | 사례수(명) | 비율(%) | | |
| 전체 | | 1,026 | 100.0% | 1,026 | 100.0% | 1.00 |
| 성별 | 남성 | 541 | 52.7 | 511 | 49.8 | 0.94 |
| | 여성 | 485 | 47.3 | 515 | 50.2 | 1.06 |
| 연령 | 만18~29세 | 122 | 11.9 | 169 | 16.5 | 1.39 |
| | 30대 | 146 | 14.2 | 154 | 15.0 | 1.05 |
| | 40대 | 205 | 20.0 | 187 | 18.2 | 0.91 |
| | 50대 | 217 | 21.2 | 199 | 19.4 | 0.92 |
| | 60대 | 186 | 18.1 | 174 | 17.0 | 0.94 |
| | 70세 이상 | 150 | 14.6 | 143 | 13.9 | 0.95 |
| | 지역 | 서울 | 210 | 20.5 | 194 | 18.9 |
| 지역 | 인천·경기 | 315 | 30.7 | 326 | 31.8 | 1.03 |
| | 대전·세종·충청 | 104 | 10.1 | 108 | 10.5 | 1.04 |
| | 광주·전라 | 103 | 10.0 | 99 | 9.6 | 0.96 |
| | 대구·경북 | 102 | 9.9 | 101 | 9.8 | 0.99 |
| | 부산·울산·경남 | 146 | 14.2 | 153 | 14.9 | 1.05 |
| | 강원·제주 | 46 | 4.5 | 45 | 4.4 | 0.9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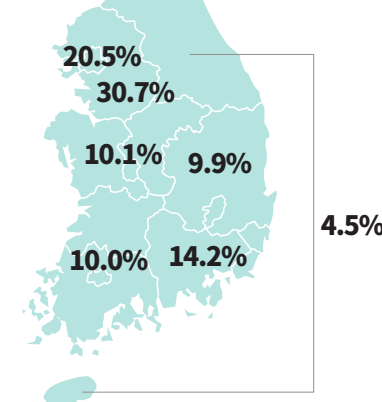
성별



연령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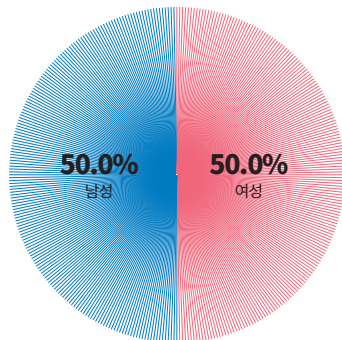


CAT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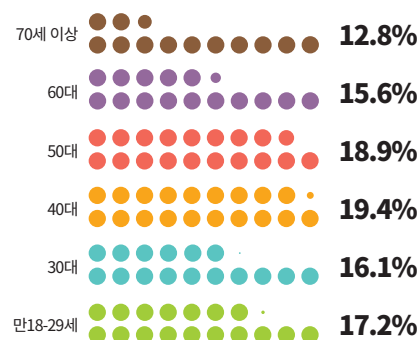
| | |
|-------|--|
| 모 집 단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
| 표본크기 | 1,009명 |
| 표본오차 | ±3.1%포인트(95% 신뢰수준) |
| 표집방법 |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
| 조사방법 | 통신3사(전체 30,000개 / SKT: 15,000, KT: 9,000, LGU+: 6,000)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
| 가중방법 | 행정안전부 2023년 4월 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
| 응답률 | 17.2% [총 통화시도 5,871명] |
| 조사기간 | 2023년 5월 19일 ~ 5월 20일(2일간) |
| 조사기관 | (주)여론조사꽃 |

| 응답자 특성 | 조사완료 사례수(A) | | 가중값 적용 기준(B) | | 가중값배율 (B/A) | |
|-----------|-------------|--------|--------------|--------|----------------|------|
| | 사례수(명) | 비율(%) | 사례수(명) | 비율(%) | | |
| 전체 | | | | | | |
| | 1,009 | 100.0% | 1,009 | 100.0% | 1.00 | |
| 성별 | 남성 | 504 | 50.0 | 500 | 49.6 | 0.99 |
| | 여성 | 505 | 50.0 | 509 | 50.4 | 1.01 |
| 연령 | 만18~29세 | 174 | 17.2 | 166 | 16.5 | 0.95 |
| | 30대 | 162 | 16.1 | 151 | 15.0 | 0.93 |
| | 40대 | 196 | 19.4 | 184 | 18.2 | 0.94 |
| | 50대 | 191 | 18.9 | 196 | 19.4 | 1.03 |
| | 60대 | 157 | 15.6 | 171 | 16.9 | 1.09 |
| | 70세 이상 | 129 | 12.8 | 141 | 14.0 | 1.09 |
| | | | | | | |
| 지역 | 서울 | 193 | 19.1 | 189 | 18.7 | 0.98 |
| | 인천·경기 | 316 | 31.3 | 320 | 31.7 | 1.01 |
| | 대전·세종·충청 | 107 | 10.6 | 107 | 10.6 | 1.00 |
| | 광주·전라 | 100 | 9.9 | 99 | 9.8 | 0.99 |
| | 대구·경북 | 100 | 9.9 | 99 | 9.8 | 0.99 |
| | 부산·울산·경남 | 152 | 15.1 | 151 | 15.0 | 0.99 |
| | 강원·제주 | 41 | 4.1 | 44 | 4.4 | 1.0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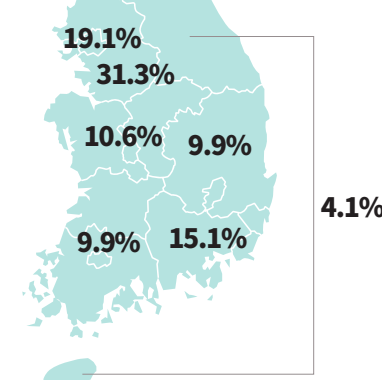
성별



연령



지역



본 조사 결과의 저작권은 (주)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할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관 108호 규정에 따라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결과에는 표본조사이므로 결괏값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괏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수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감도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산출한 지수(Index)는 비율과 구분하기 위해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합니다.

여론조사꽃 제40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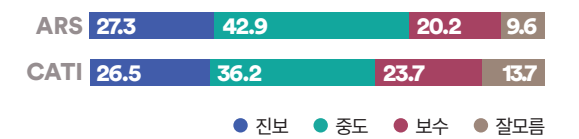
ARS & CATI

정당지지도

국정운영 평가

40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는 국정지지도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사회 현안을 ARS와 전화면접조사로 묻고 그 응답을 정리해 보고합니다.

이념성향별 응답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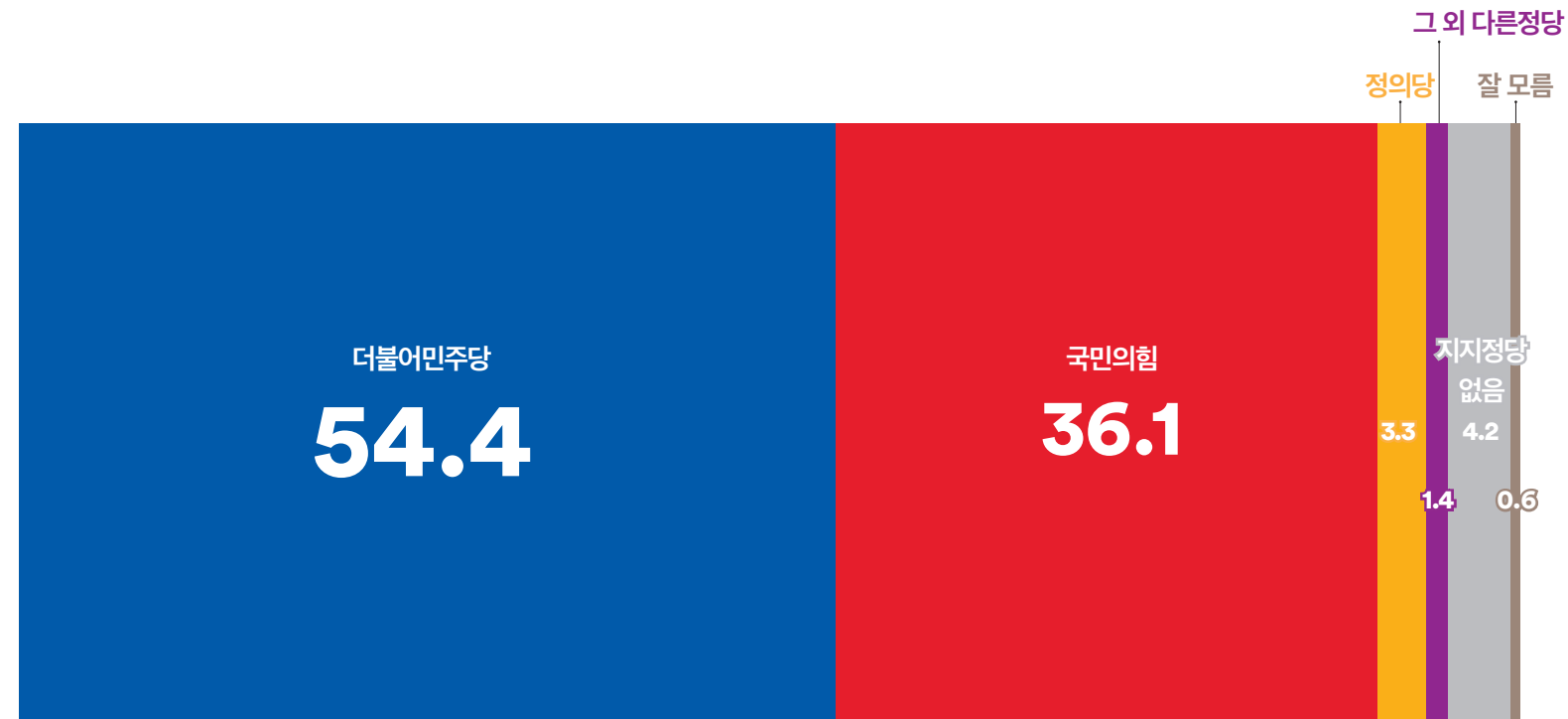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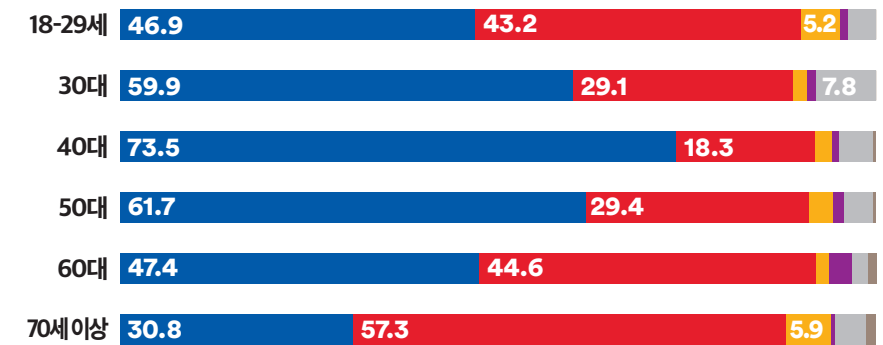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RS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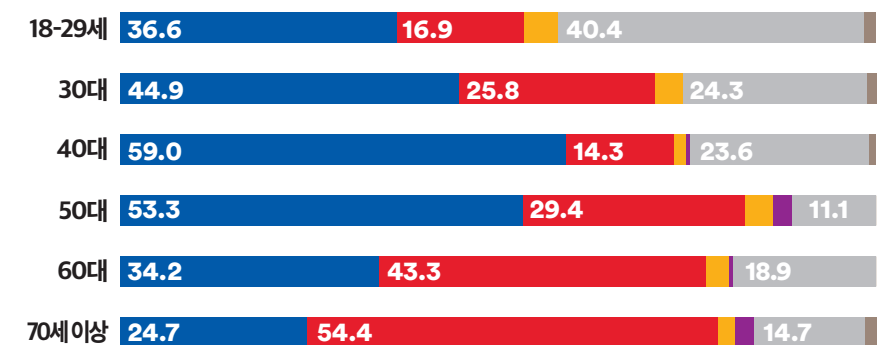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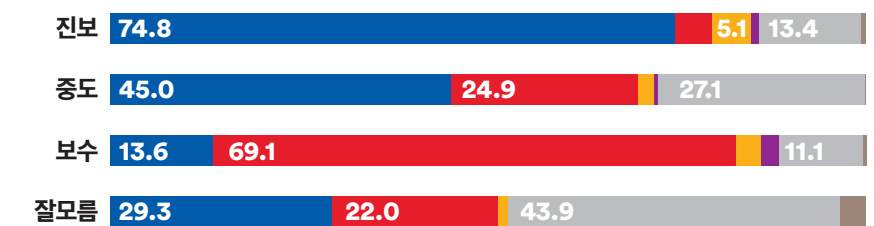
CATI



연령



이념성향



지난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5.0%p 상승, 국민의힘 3.8%p 하락(격차 18.3%p)
 지난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2.1%p 상승, 국민의힘 2.4%p 하락(격차 13.2%p)
 30-50대, 진보·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하고 70세 이상, 보수층은 국민의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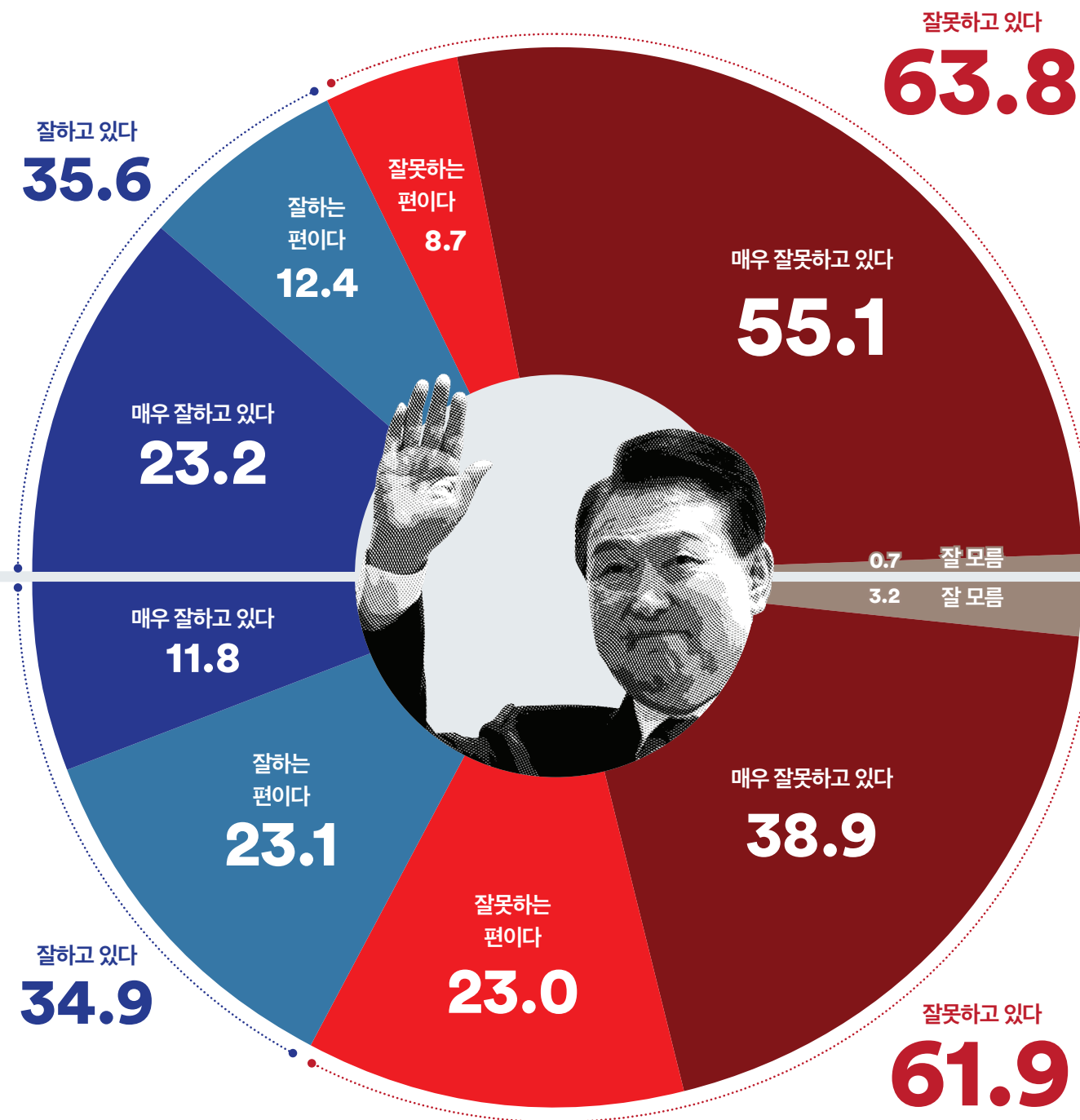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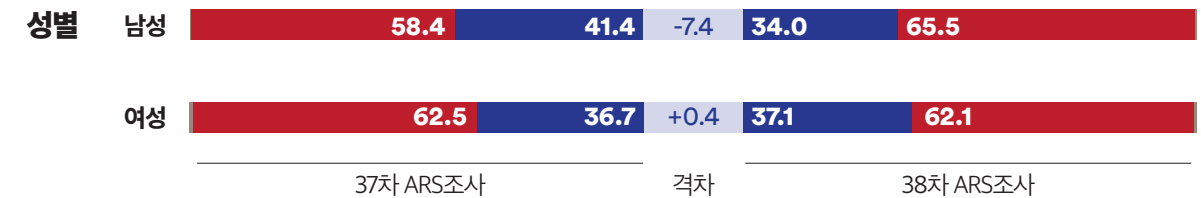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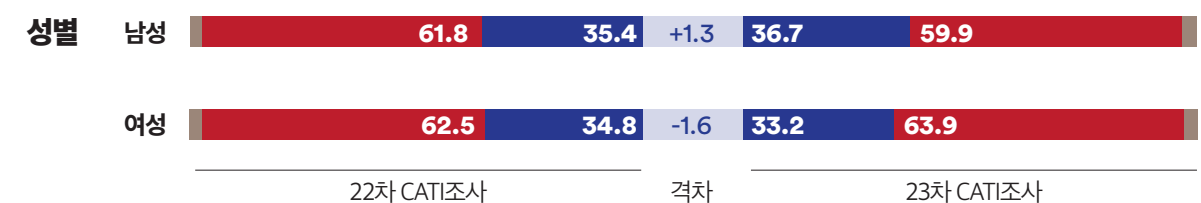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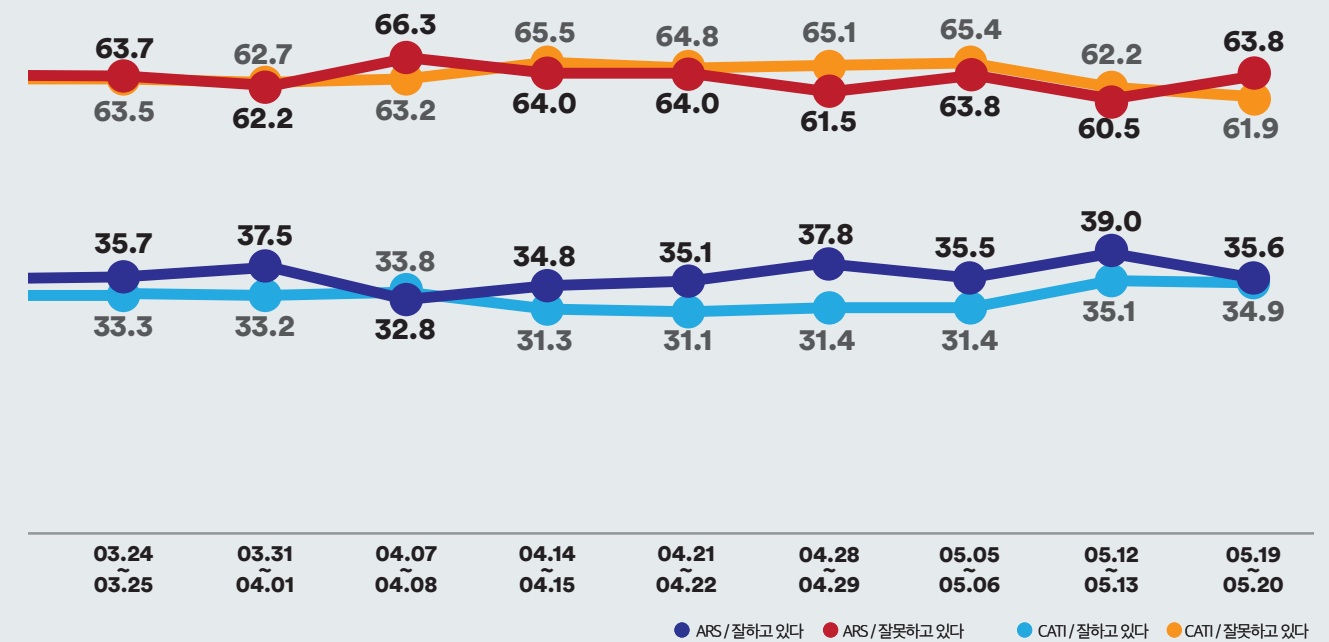
CATI



지난 ARS 조사 대비 긍정평가 3.4%p 하락, 부정평가 3.3%p 상승 (격차 28.2%p)
 지난 CATI 조사 대비 긍정평가 0.2%p 하락, 부정평가 0.3%p 하락 (격차 27.0%p)
 남·녀 모두, 50대이하 응답층, TK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 부정평가 앞섬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격차 | 잘하고 있다 | 잘못하고 있다 |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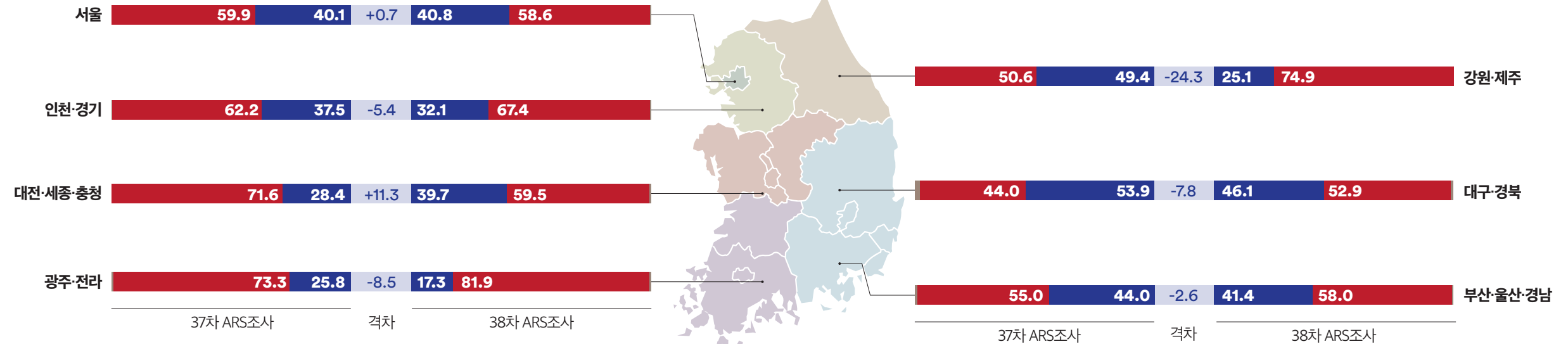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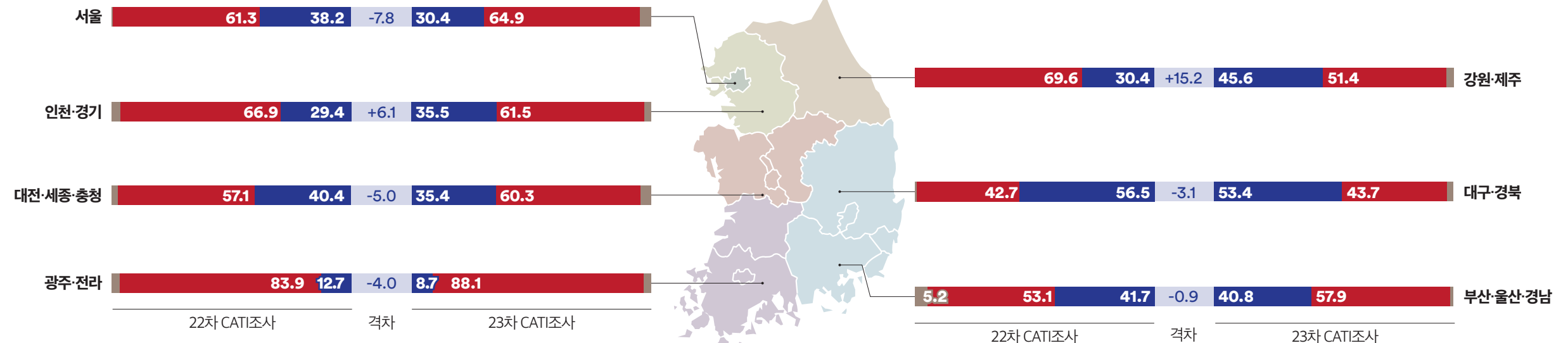
ARS

권역별



CATI

권역별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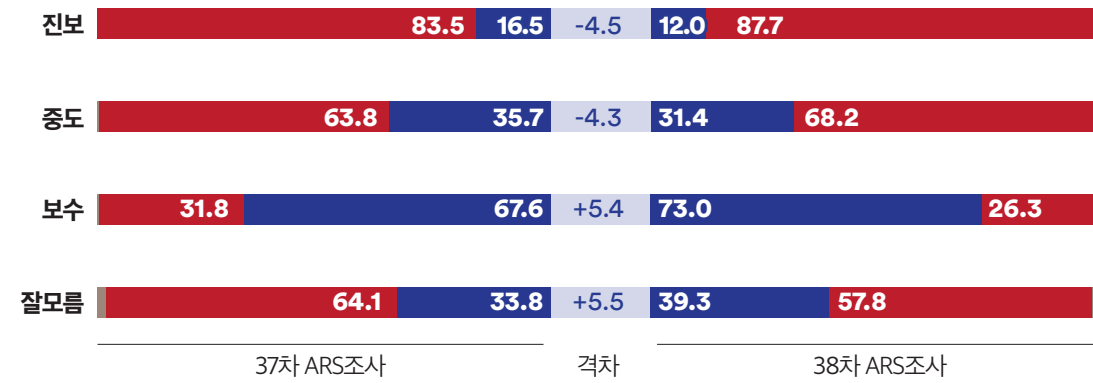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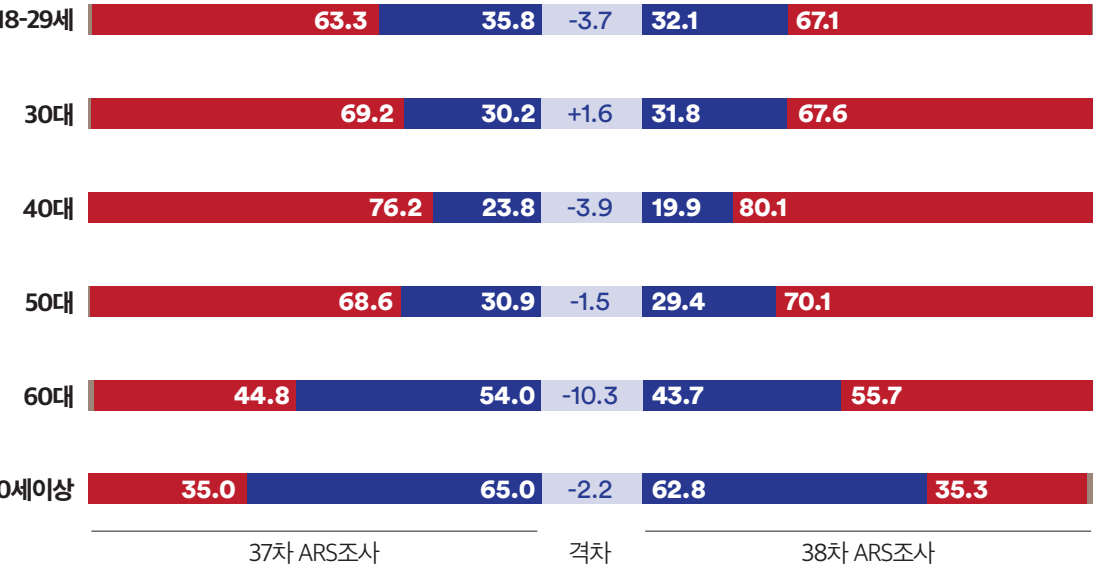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RS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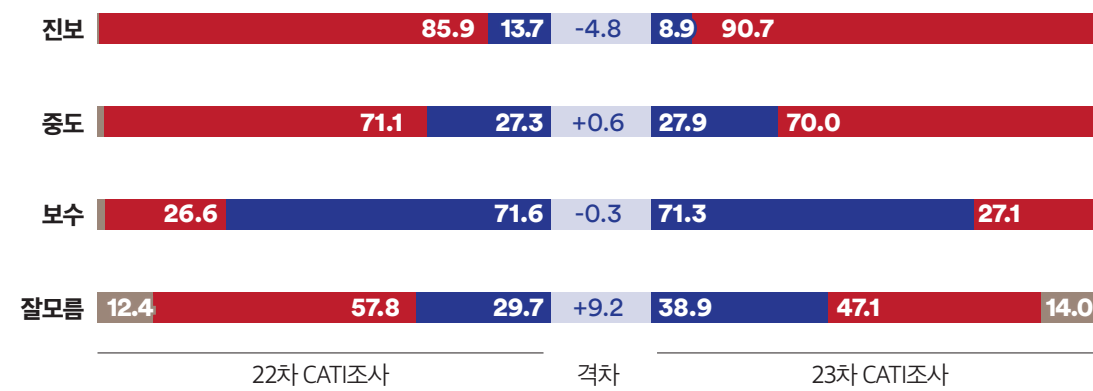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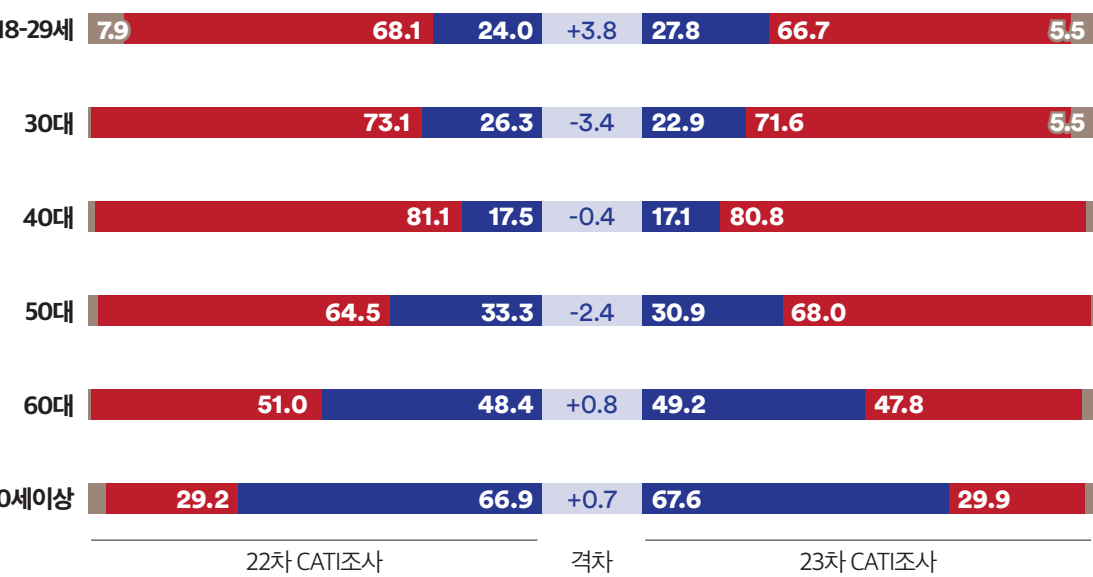


CATI

이념성향



연령대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여론조사꽃 제40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G7 정상회의

ARS & CATI / CATI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해야할 일

후쿠시마 오염수: 마시기에 안전할까

G7 정상회의: 일본의 요청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큼니다.

정부에서 설명한 시찰 일정은 일본 관계기관과의 기술 회의 및 질의 응답,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관리 실태 확인 정도입니다. 민간 전문가의 참여도 없고 검사 장비나 오염수 시료 채취등의 검증도 일본 정부는 거부했습니다. 검증요구가 최종적으로 거절된다면 우리 시찰단이 어떤 결정을 하는것이 옳은지 묻고 그 응답을 정리했습니다.

웨이드 엘리스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교수는 “만약 내 앞에 지금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저장조에 저장돼 있는 오염수가 있다면, 희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1ℓ가량을 바로 마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신뢰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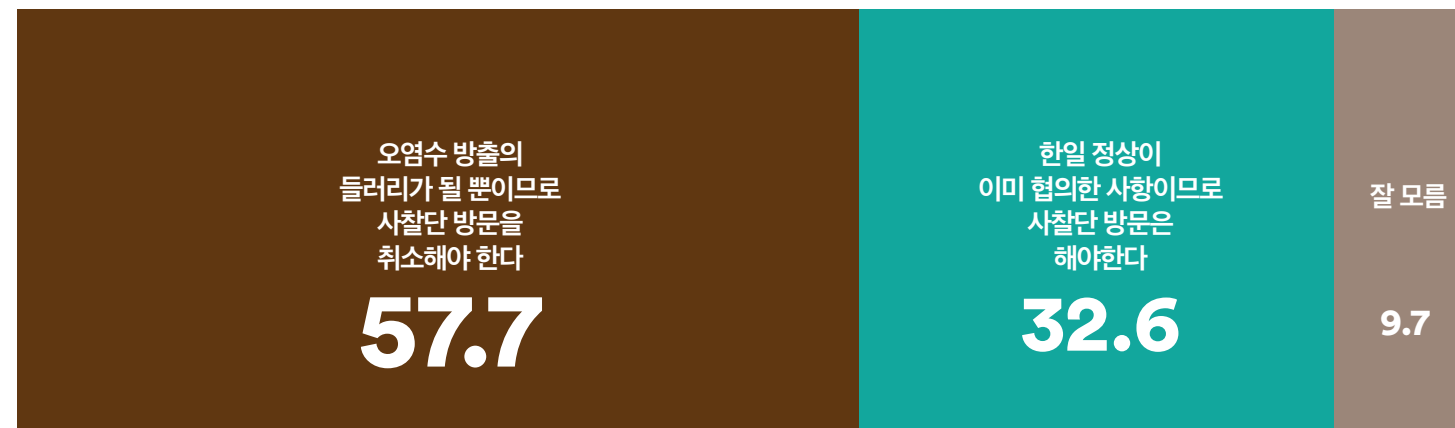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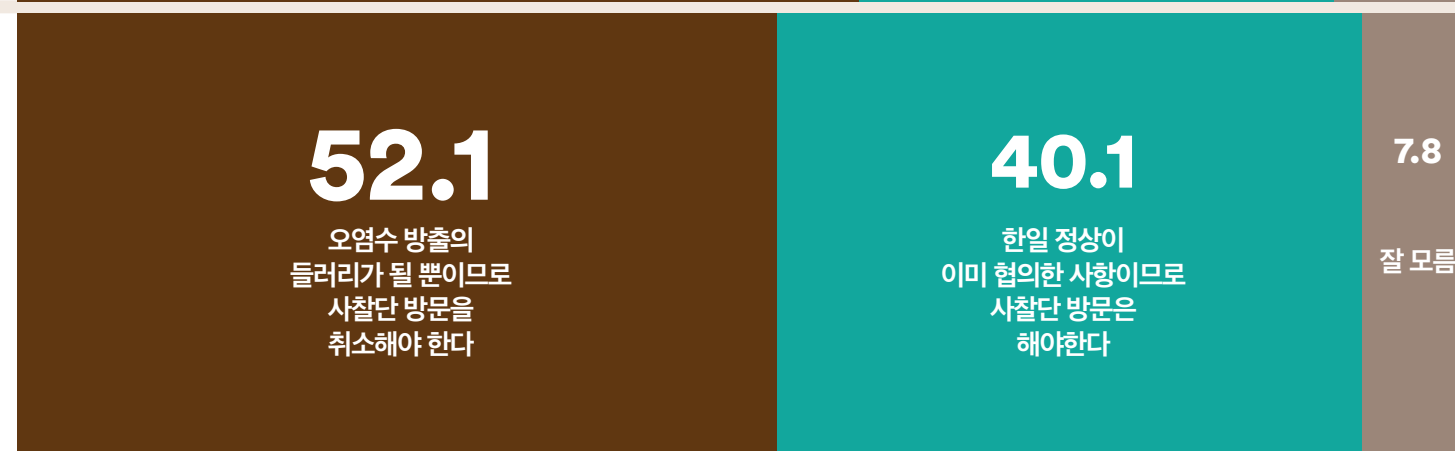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해야 할 일

Q.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시료 채취 등 검증 요구를 일본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검증 요구가 최종 거절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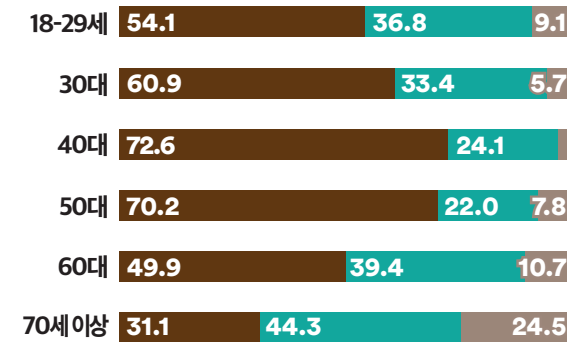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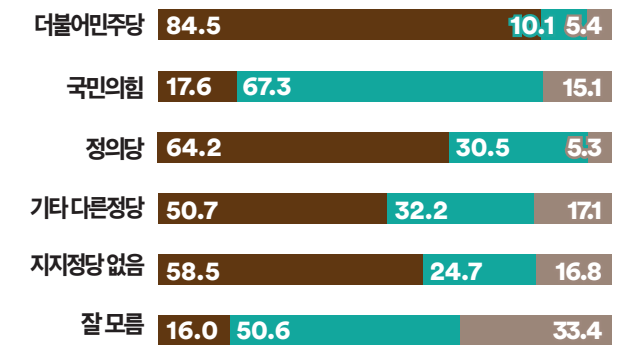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시찰단 방문을 취소해야 한다'이란 응답이 우세했으며, 응답 간 격차는 ARS 조사가 더 큼
40대·50대는 '방문을 취소해야 한다' 응답이 우세하고 70세 이상은 '방문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앞섬
18~29세의 경우, 여성은 두 조사 모두 '취소' 응답이 앞섰고, 남성은 CATI는 '방문', ARS에서는 '취소' 응답이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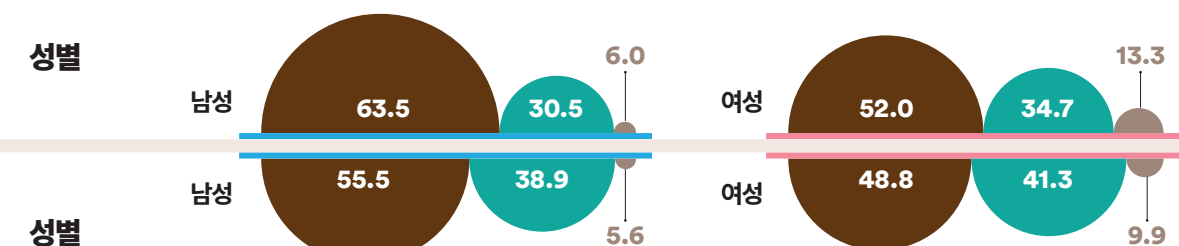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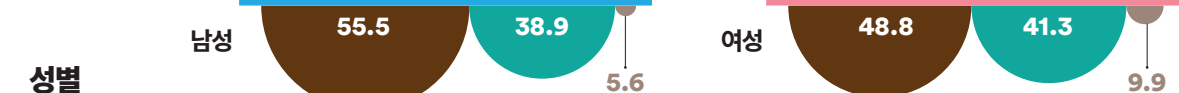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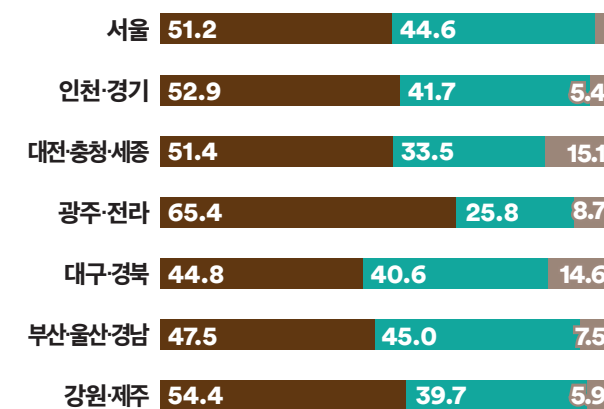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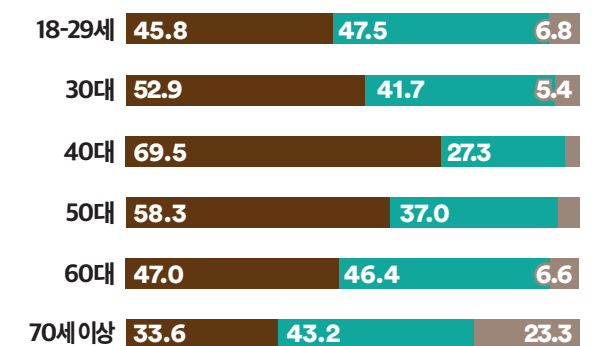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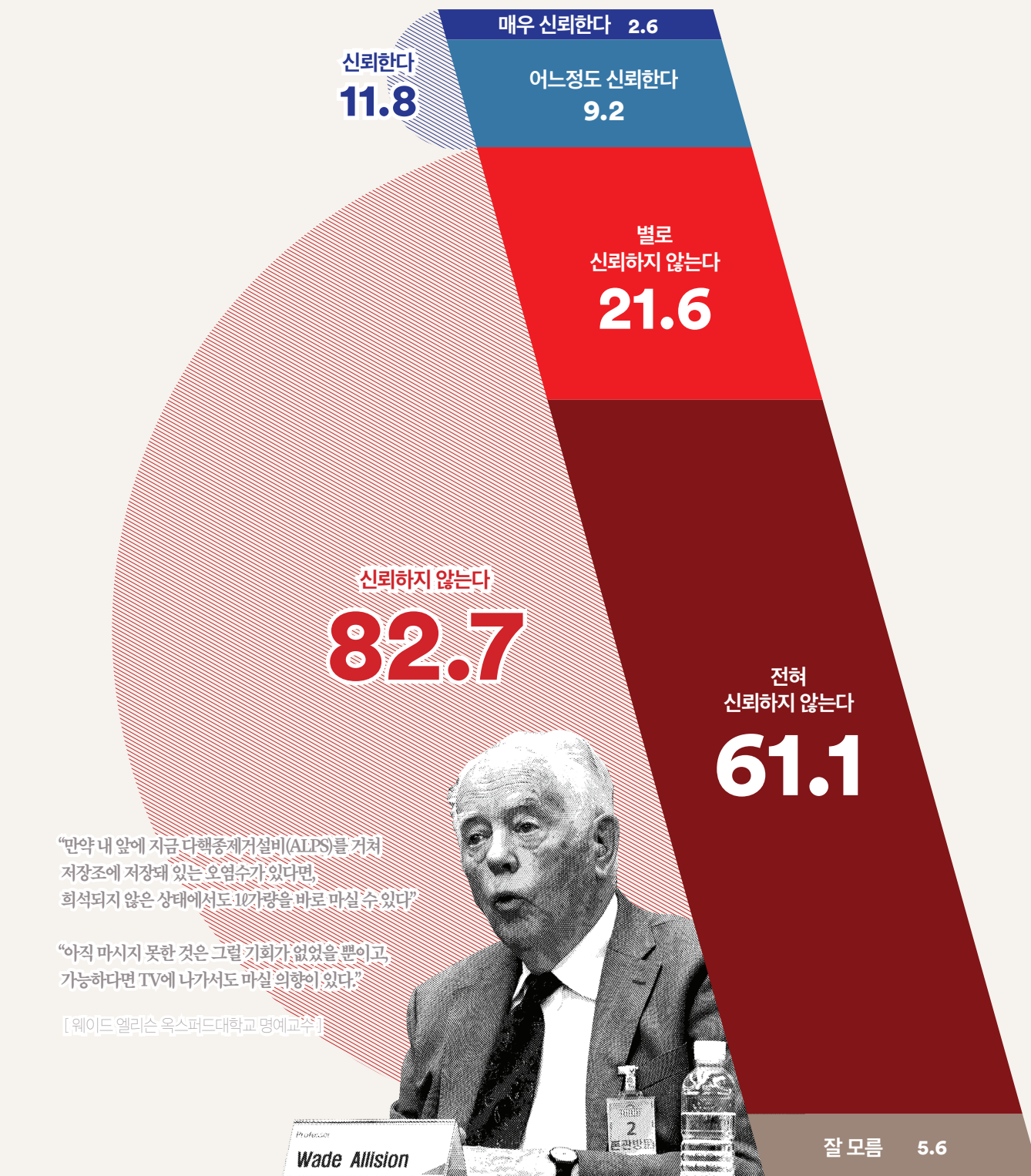
■ 시찰단 방문을
취소해야 한다 ■ 시찰단 방문은
해야 한다 ■ 모르겠다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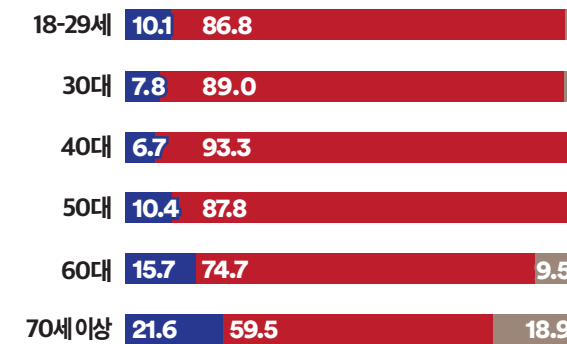
후쿠시마 오염수: 마시기에 안전할까

Q.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1리터 마셔도 된다'고 한 영국 교수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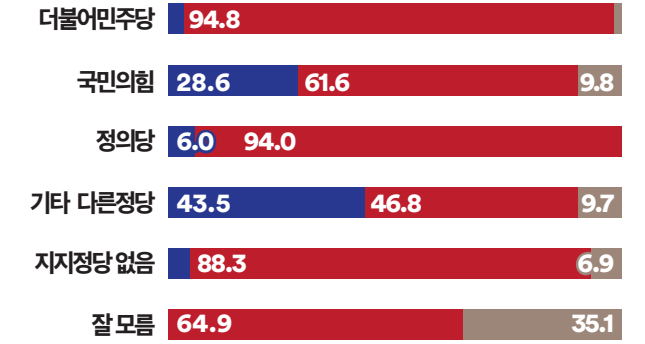


10명 중 8명 이상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 '신뢰한다'는 응답 대비 압도적 우세
세부지표를 포함한 모든 성·연령대·권역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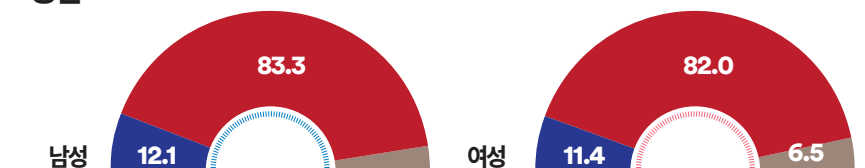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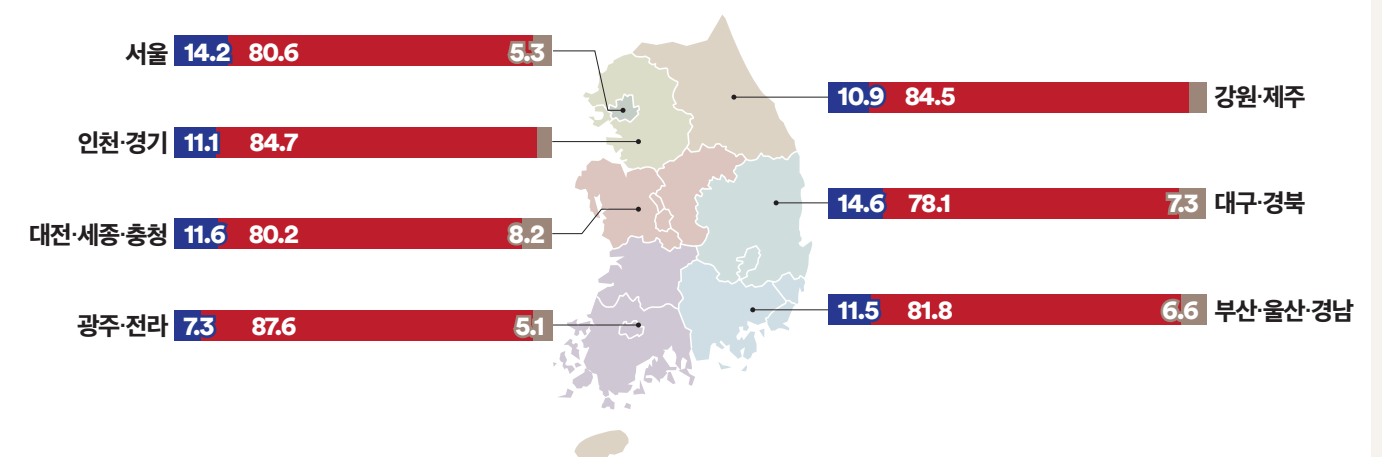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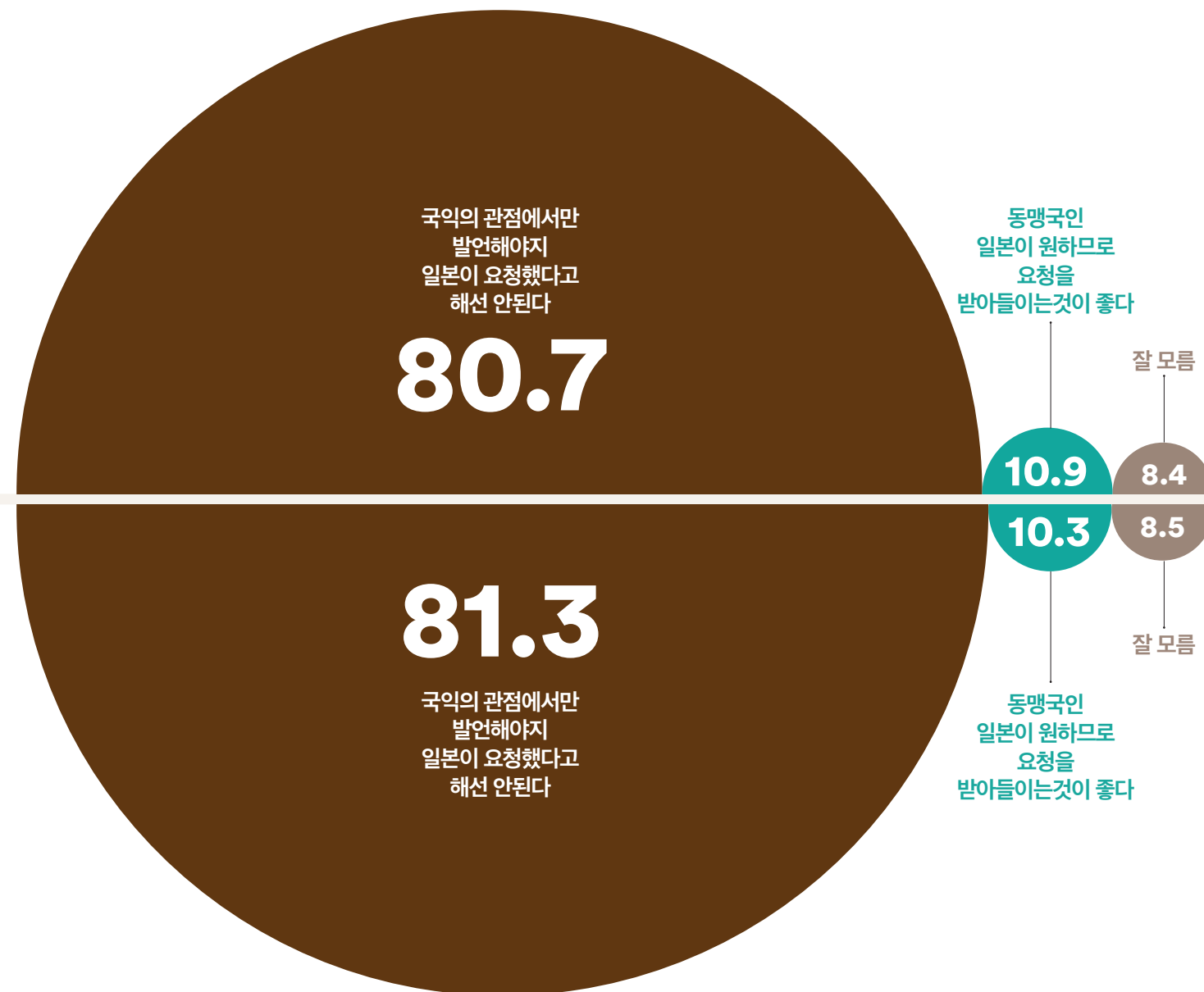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G7 정상회의: 일본의 요청

Q. 윤 대통령이 일본으로부터 G7 정상회의에서 대만 관련 발언을 요청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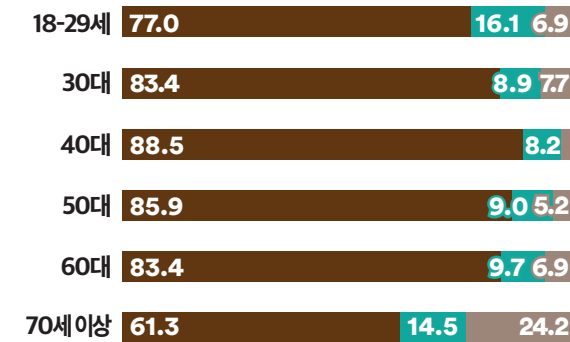
ARS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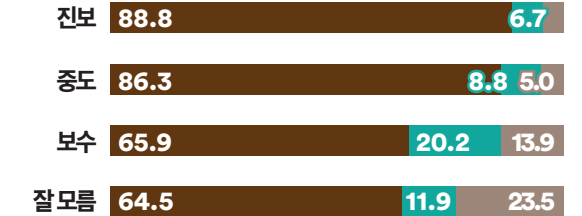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국익의 관점에서만 발언해야지 일본이 요청했다고 해선 안된다'라는 응답이 압도적 우세
세부 지표인 '연령대 by 성별' 변수를 포함해, 두 조사의 모든 성·연령대·권역에서
'국익의 관점에서만 발언해야지 일본이 요청했다고 해선 안된다'는 응답이 압도적 우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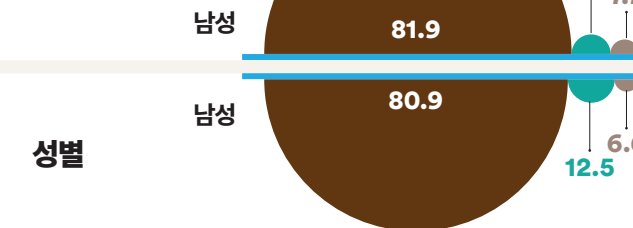
연령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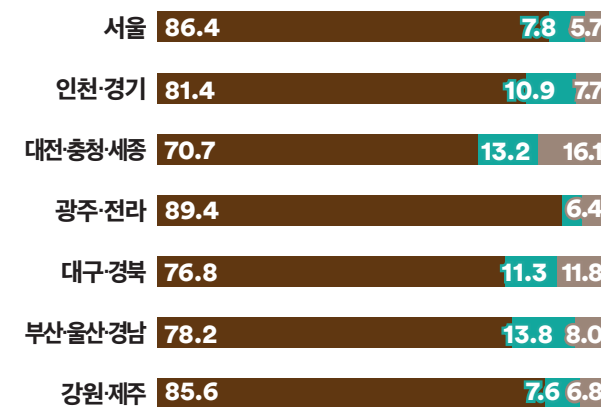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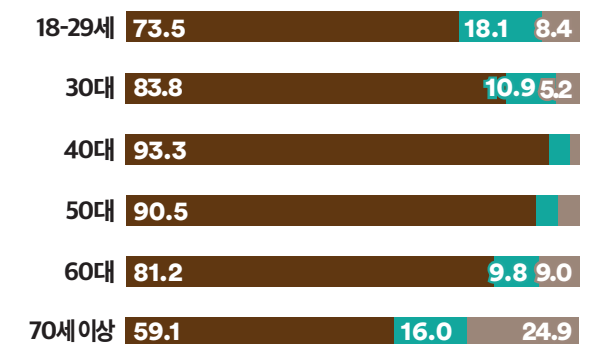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일본이 요청했다고 해서는 안된다 | 일본이 원하므로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 모르겠다



여론조사꽃 제40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대통령의 거부권, 가상자산, 전기요금 인상,
여론조사, 우리 민주주의

ARS & CATI / CATI

대통령의 거부권

가상자산: 여야의원 전수조사 필요성

가상자산: 대통령실 포함조사 필요성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

주변미터

윤 정부의 민주주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거부권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의견을 물었습니다.

국회는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는 여야 모두 공감하지만,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여야 의원 전수조사 필요성과 전수조사 시 대통령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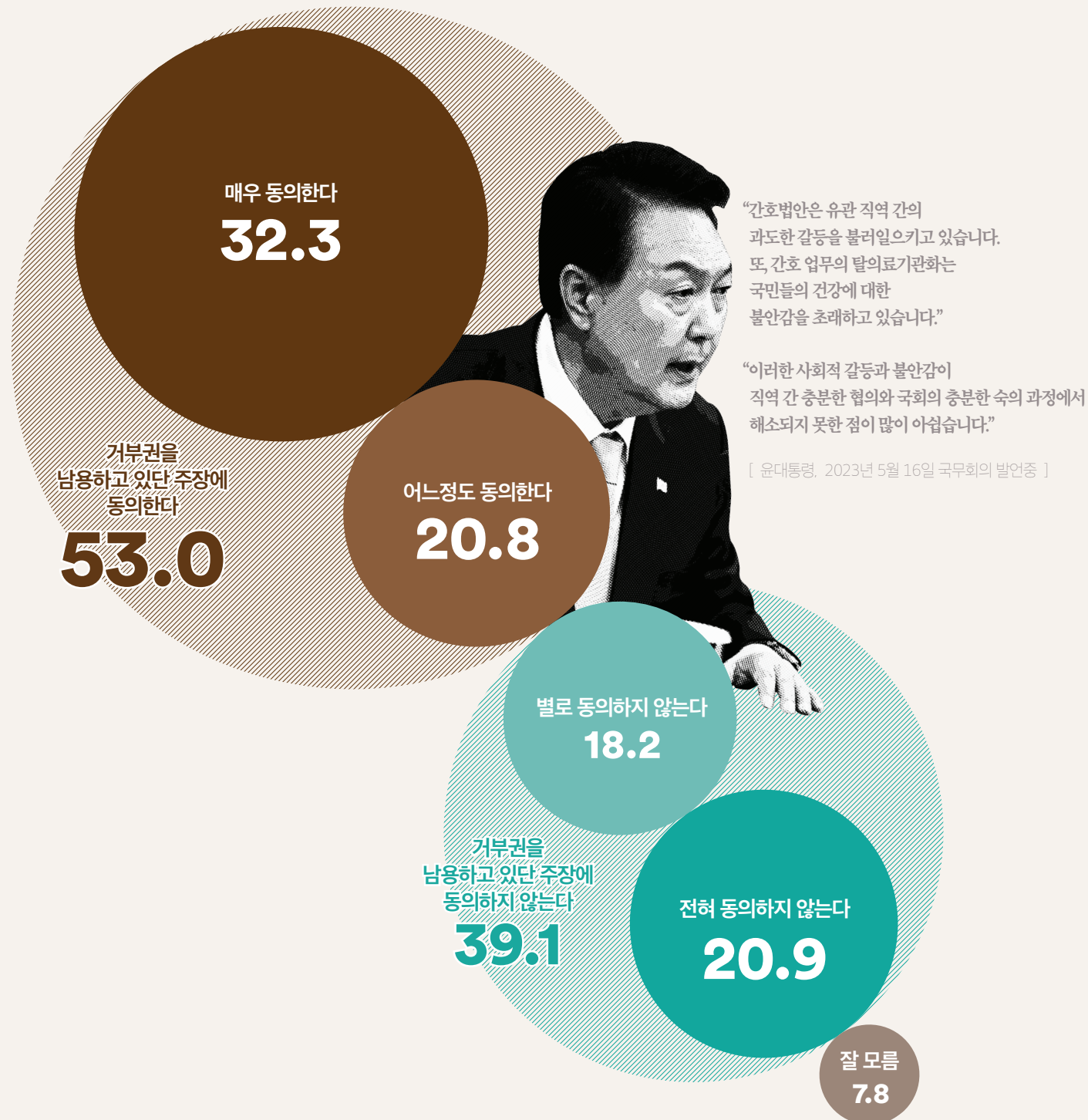
여론조사 후 발표되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주변에서 느껴지는 민심의 차이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윤 정부 1년동안의 민주주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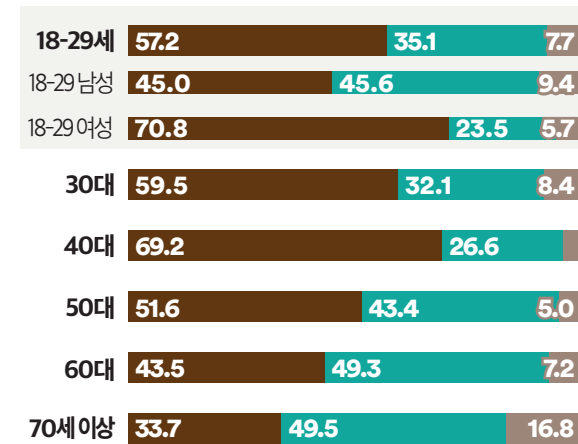
대통령의 거부권

Q.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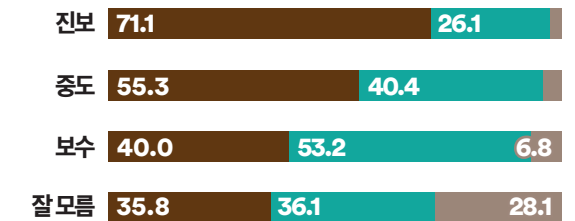


10명 중 5명 이상은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응답
50대 이하 응답층과 모든 권역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앞섰, 60대 이상 응답층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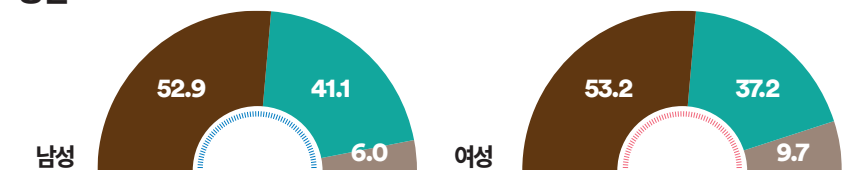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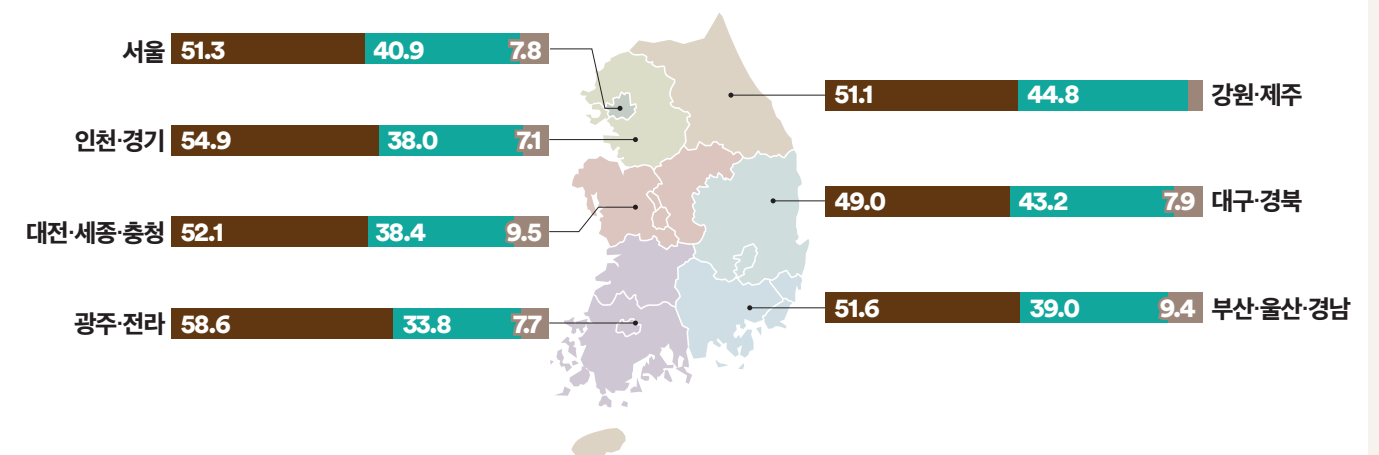
이념성향



성별



권역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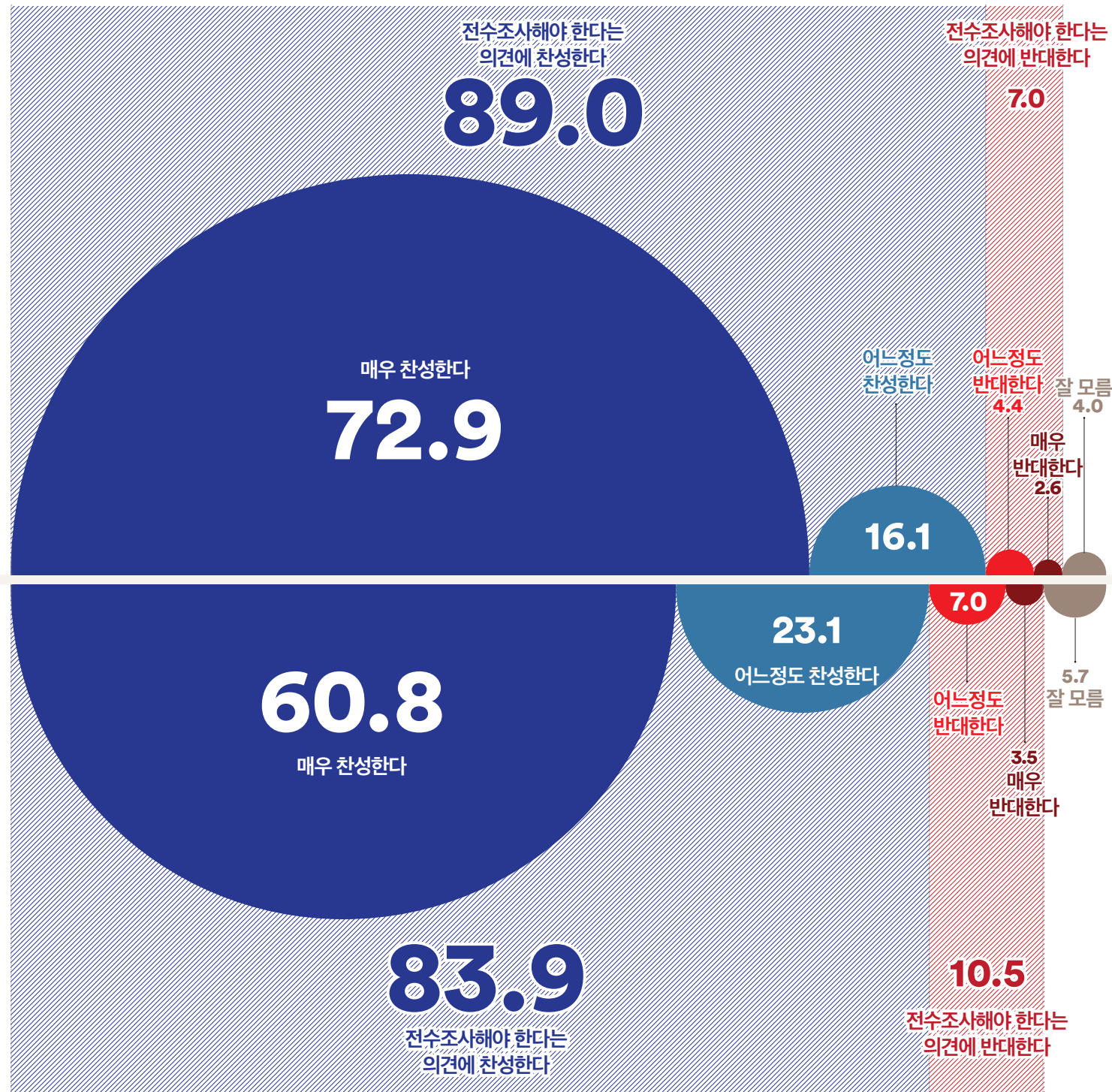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가상자산: 여야 의원 전수조사 필요성

Q. 가상자산 관련해 여야 의원 모두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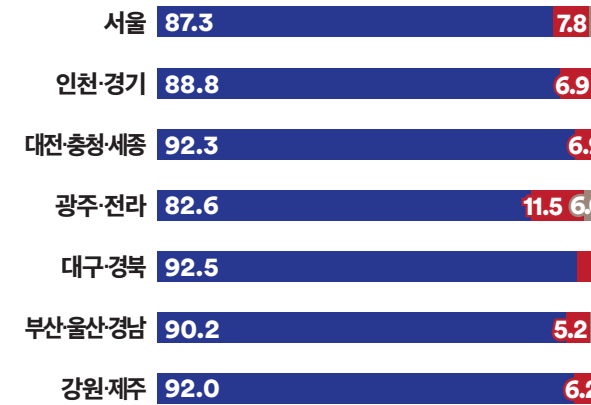
ARS

CATI



두 조사 모두 '여야 의원 모두 전수조사 해야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압도적 우세
세부 지표인 '연령대 by 성별' 변수를 포함해 모든 성·연령대·권역에서 '찬성한다'는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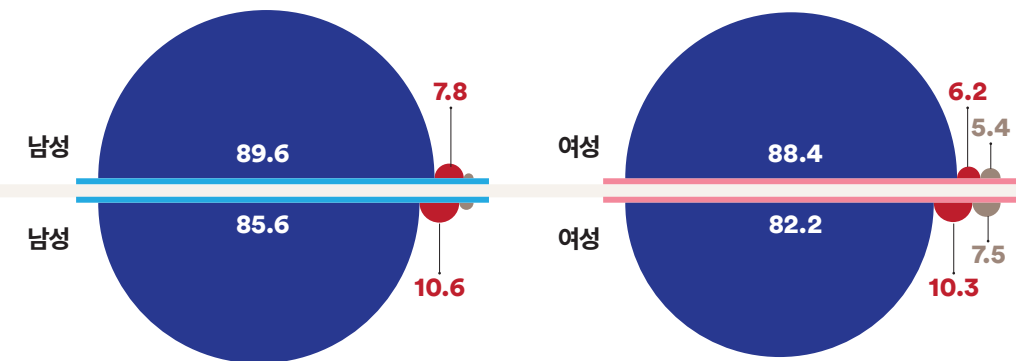
권역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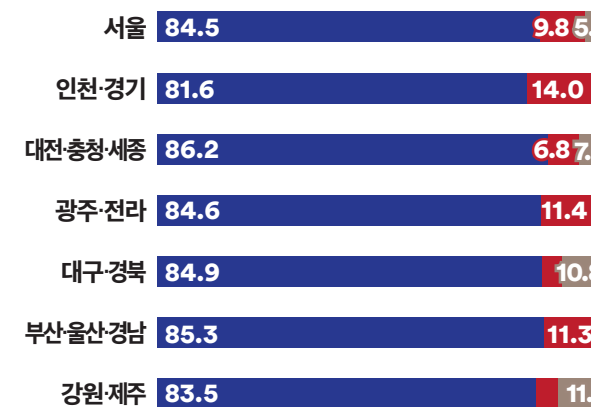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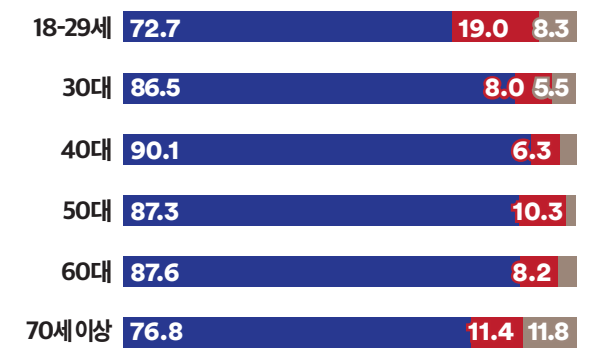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 찬성한다 ■ 반대한다 ■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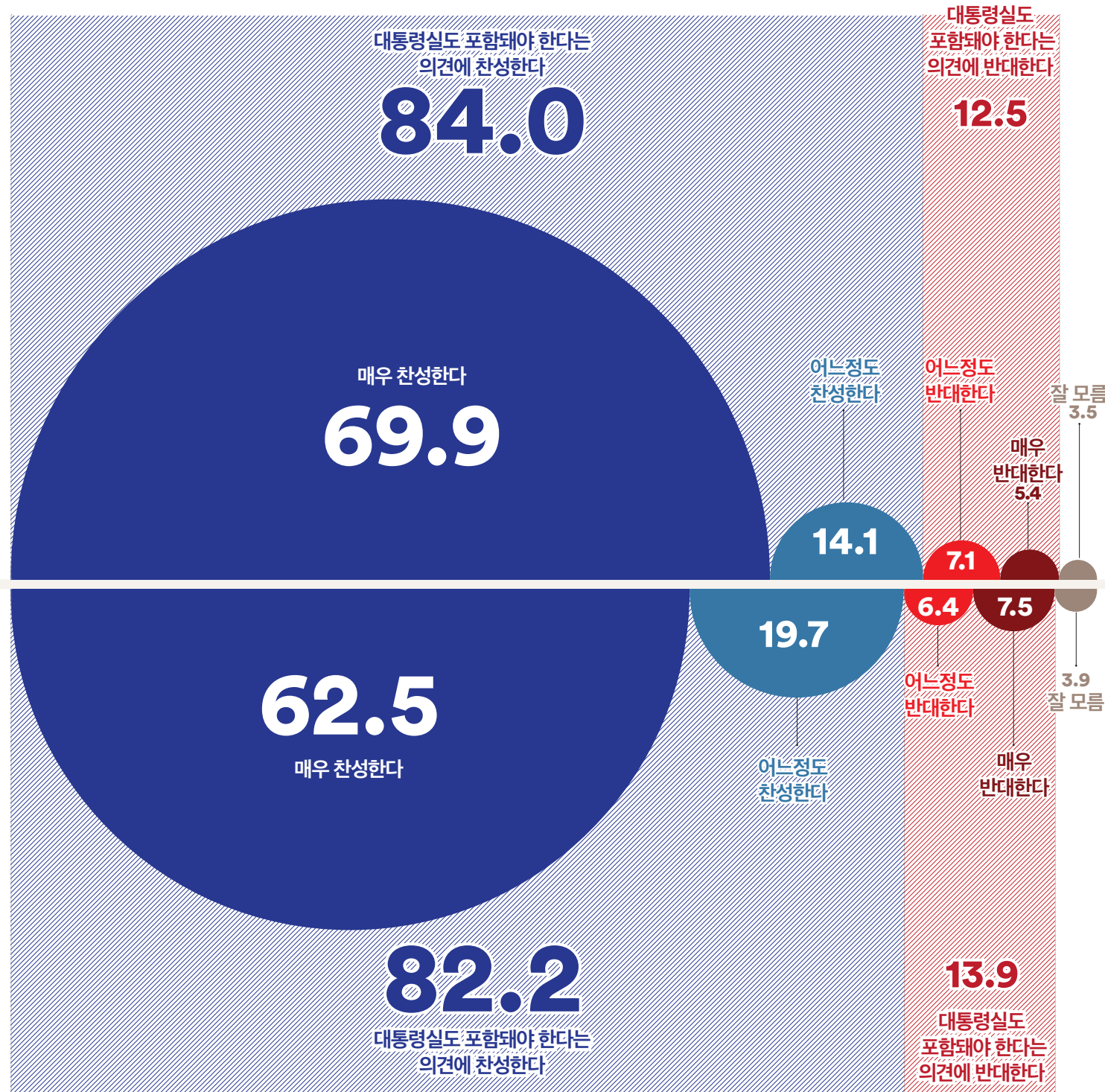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가상자산: 대통령실 포함조사 필요성

Q.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대통령실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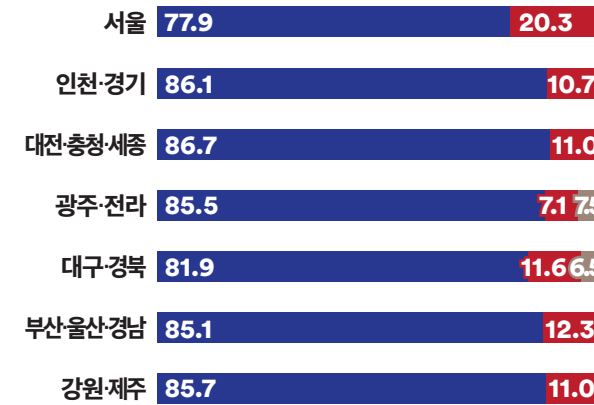
ARS

CATI



두 조사 모두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국회의원 전수조사 보다는 '반대'의견이 약간 더 높음
 보수층(ARS 75.1%, CATI 74.5%)·국민의힘 지지층(ARS 68.0%, CATI 71.6%)에서도 '찬성'의견이 압도적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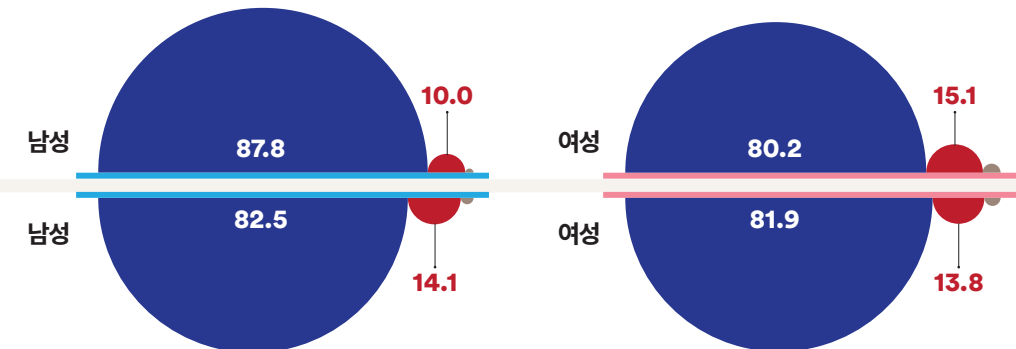
권역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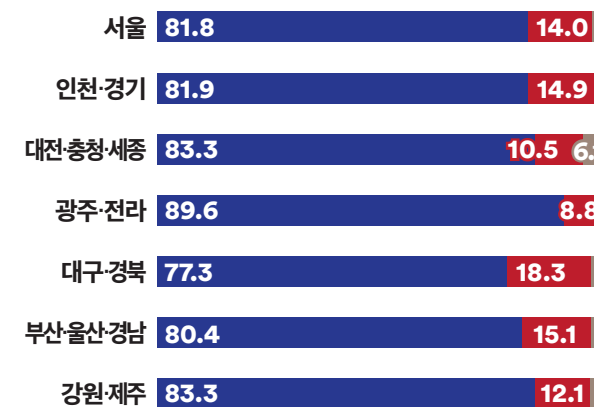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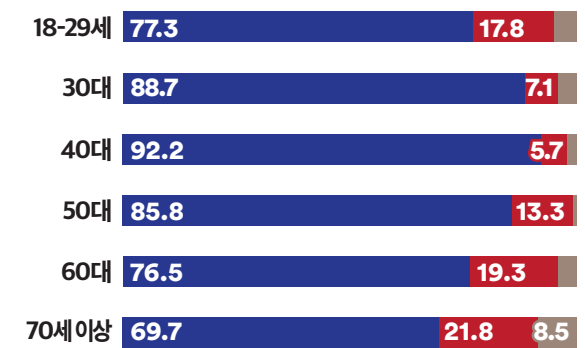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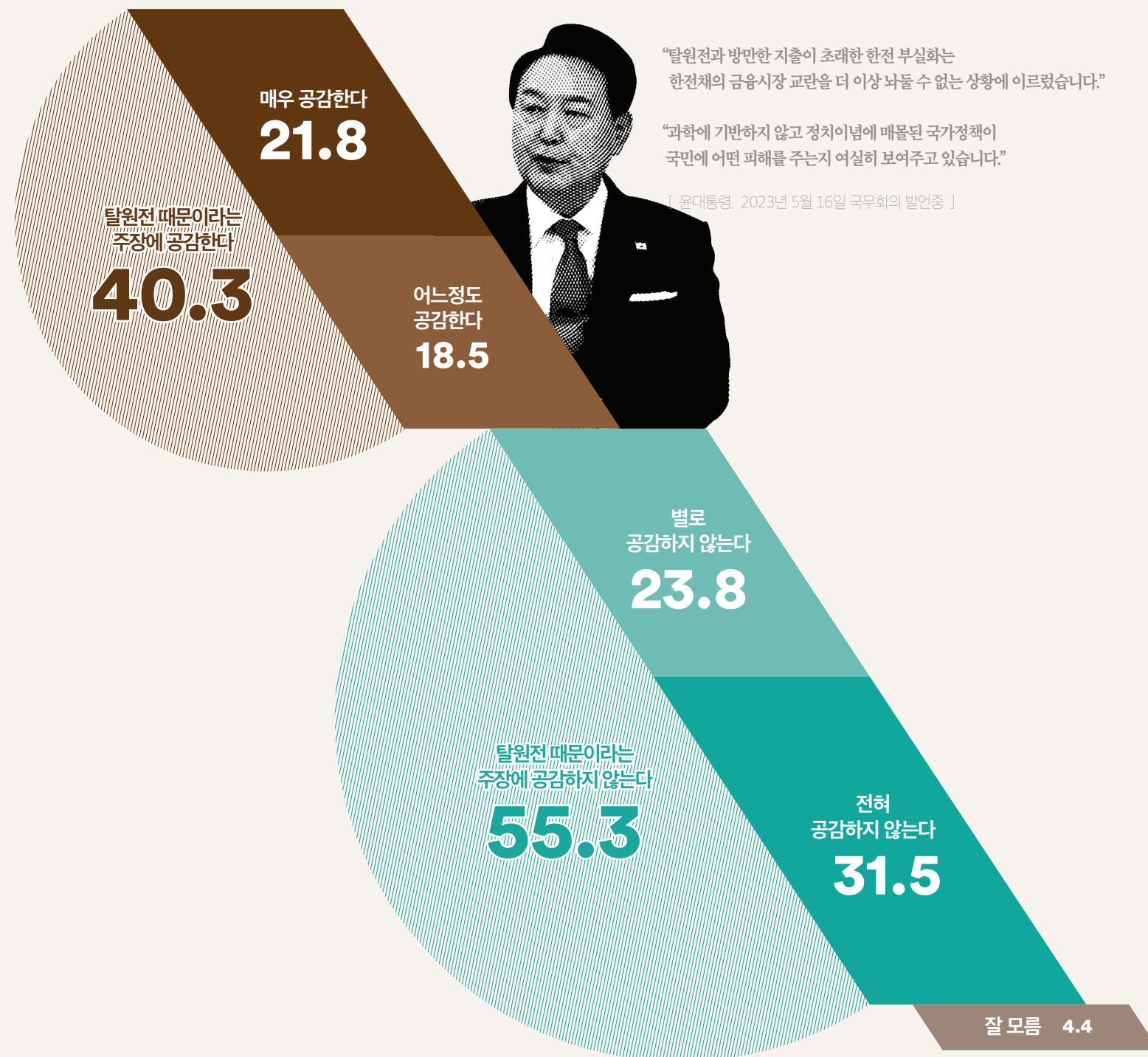
■ 찬성한다 ■ 반대한다 ■ 모르겠다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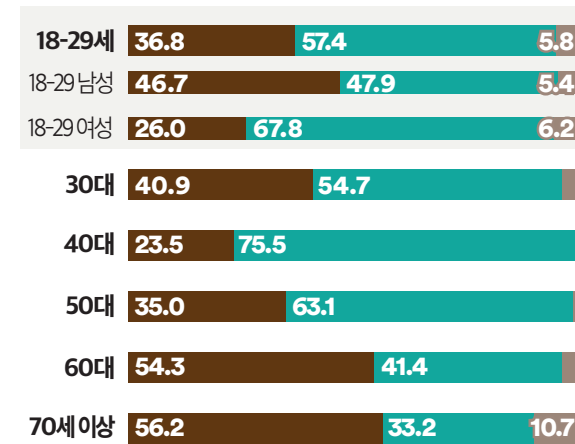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

Q. 윤석열 대통령은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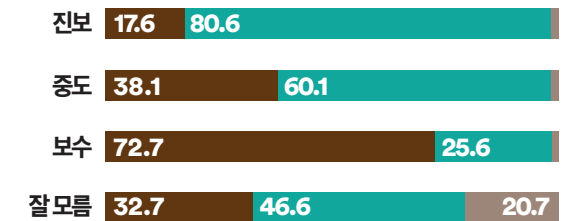


응답자 절반이상은 ‘윤 대통령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
TK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권역에서는 ‘비공감’ 응답이 앞섰고 경인·충청·호남권에서는 ‘비공감’ 응답이 우세
50대 이하의 ‘비공감’, 60대 이상은 ‘공감’ 응답이 앞서 세대간 차이를 보임
무당층(55.8%)과 중도층(60.1%)에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 앞섬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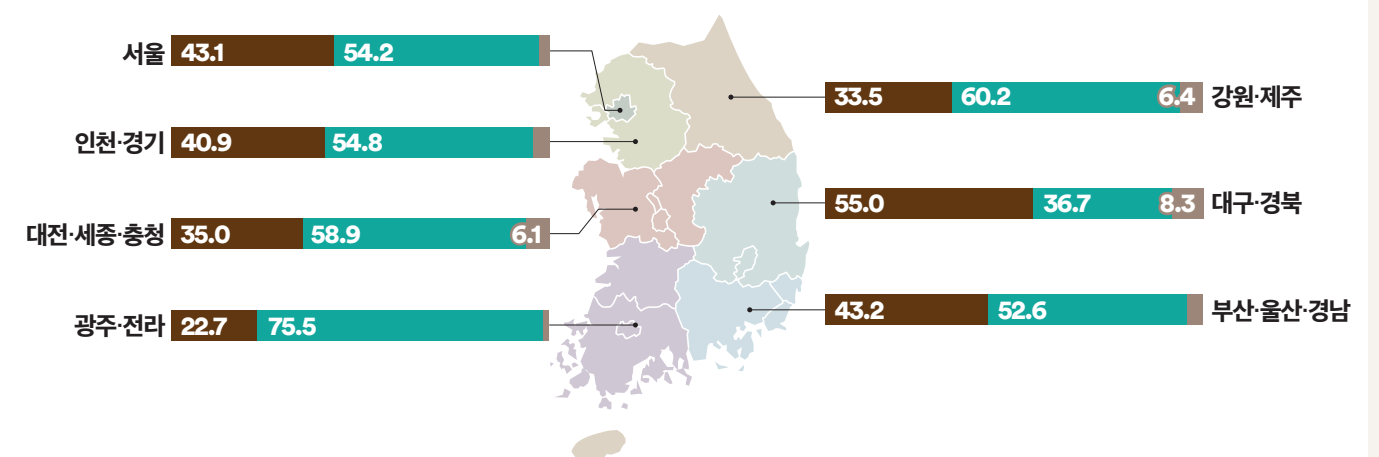
이념성향



성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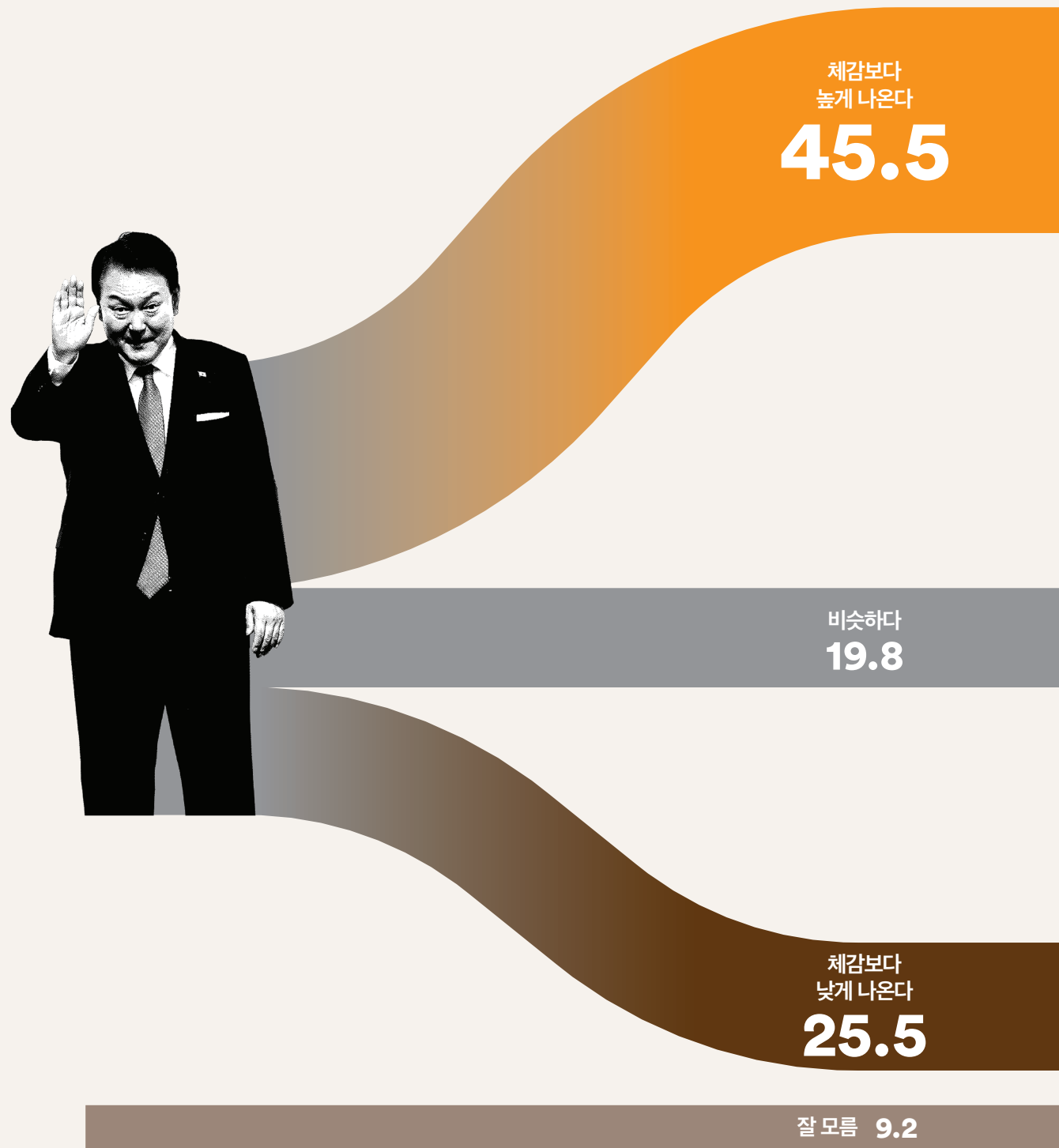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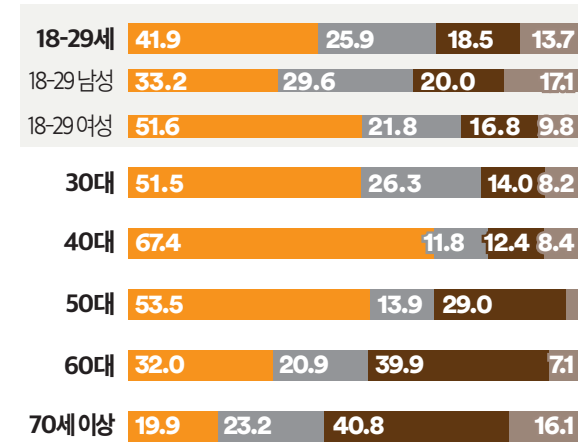
주변미터

Q.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수치를 주변에서 체감하는 민심과 비교하면 어떻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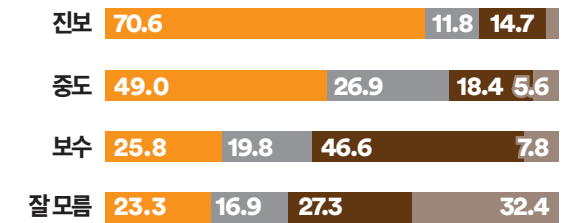


모든 권역에서 '체감보다 높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수도권·호남권에서는 '체감보다 높다'는 응답이 우세
 '체감보다 높다'는 응답은 무당층(39.5%), 중도층(49.0%)에서도 우세
 5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체감보다 높다',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체감보다 낮다'는 응답이 우세
 '비슷하다'는 응답은 18~29세 남성(29.6%), 30대 남성(28.5%), 60대 남성(29.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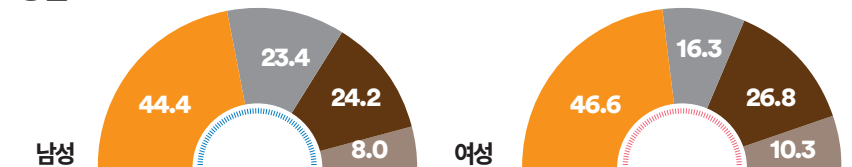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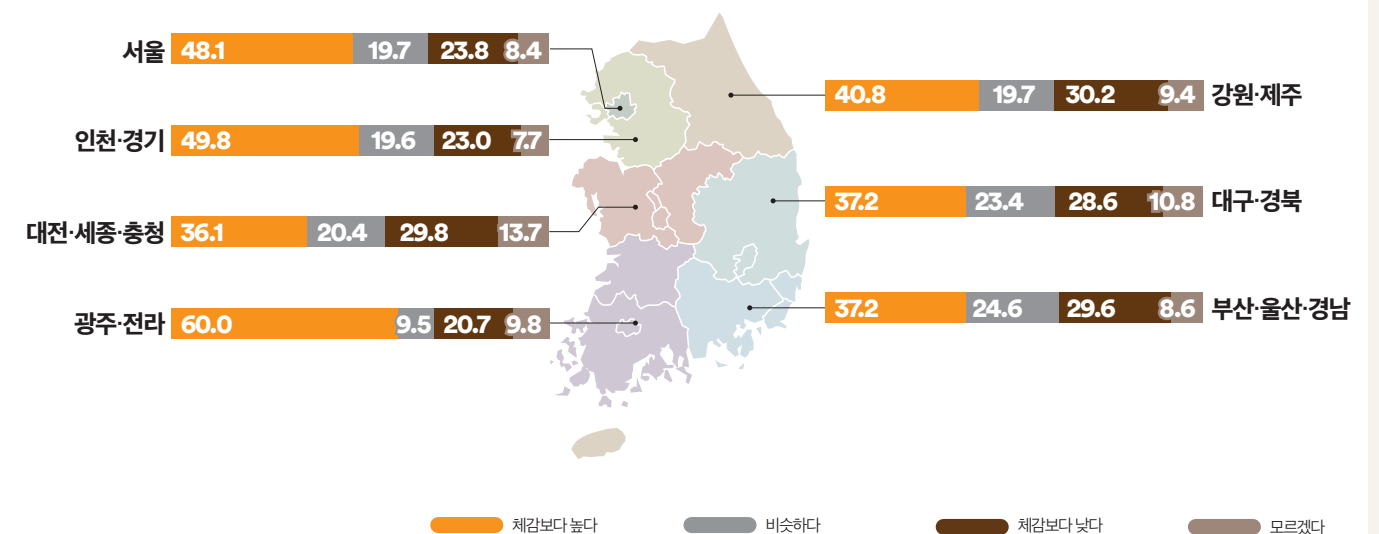
이념성향



성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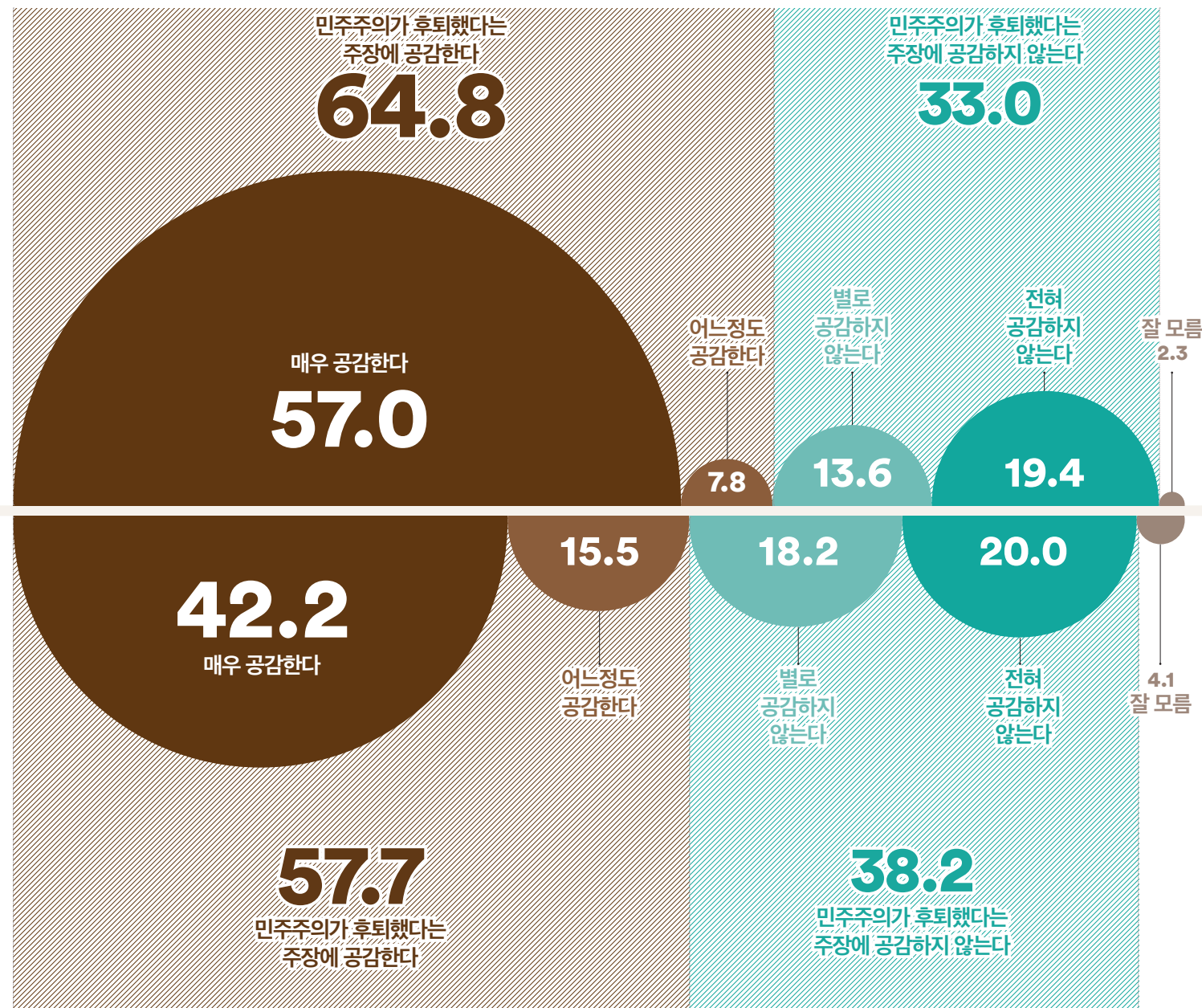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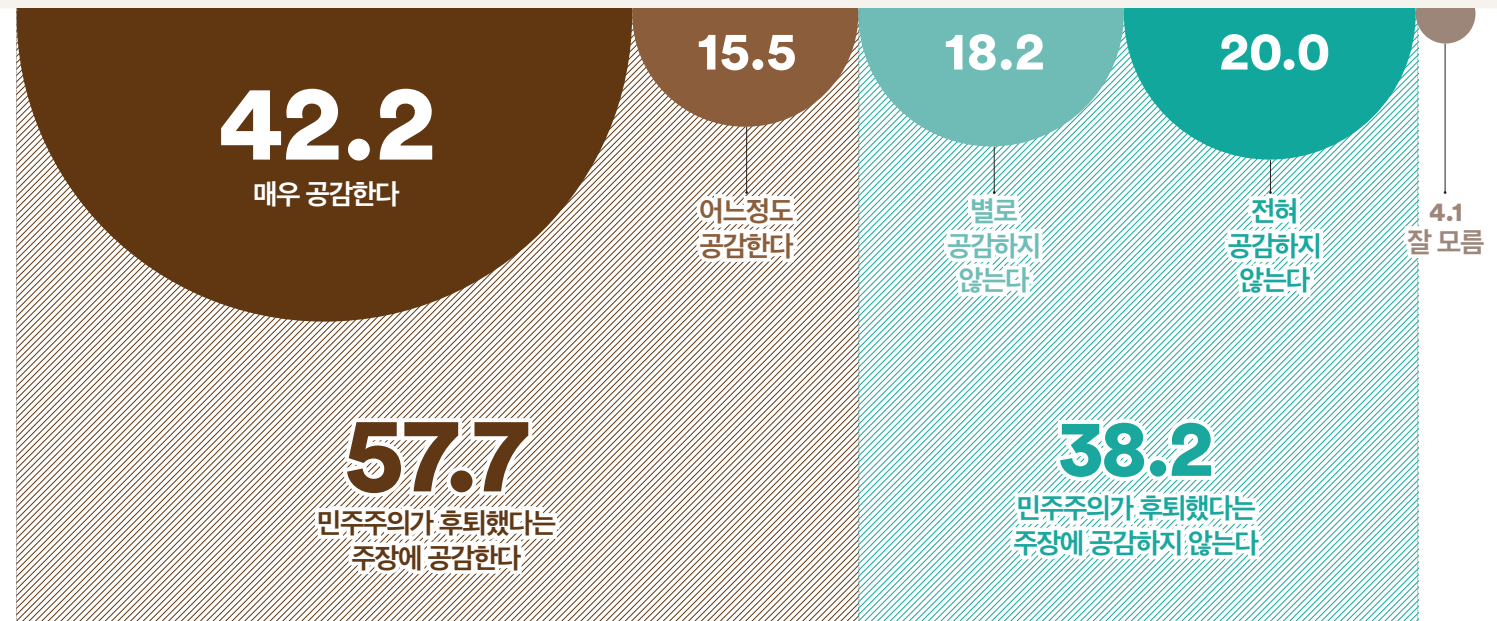
윤 정부의 민주주의

Q.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지난 1년간 우리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주장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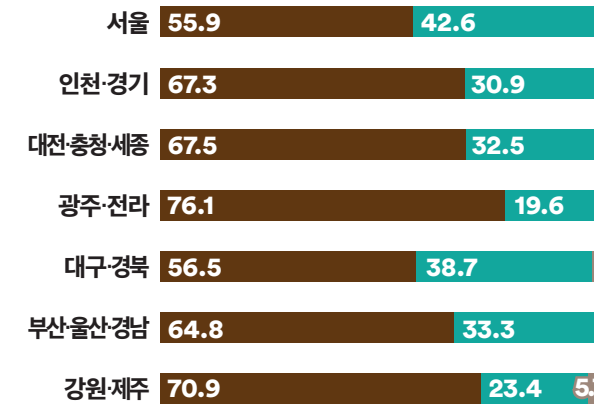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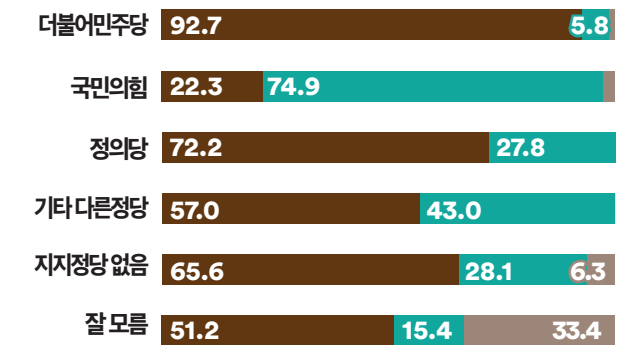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공감한다'는 응답이 우세, 조사방법에 따라 공감의 강도에 차이를 보임
 30~50대는 '공감' 응답이 우세한 반면, 70세 이상은 '비공감' 응답이 앞섬
 ARS 조사에서는 모든 권역에서 '공감' 응답이 앞섰으며 CATI 조사에서는 TK·PK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권역에서 '공감' 응답이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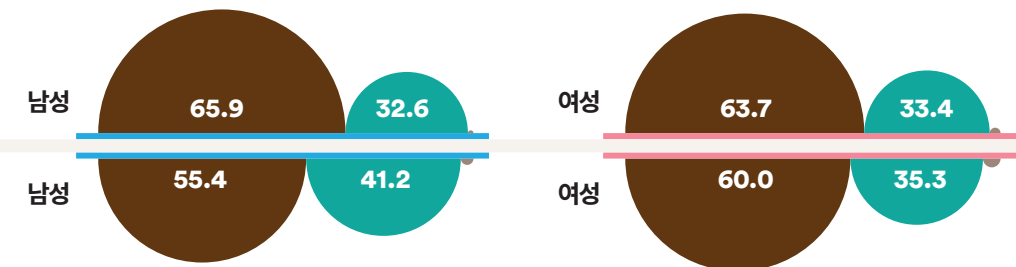
권역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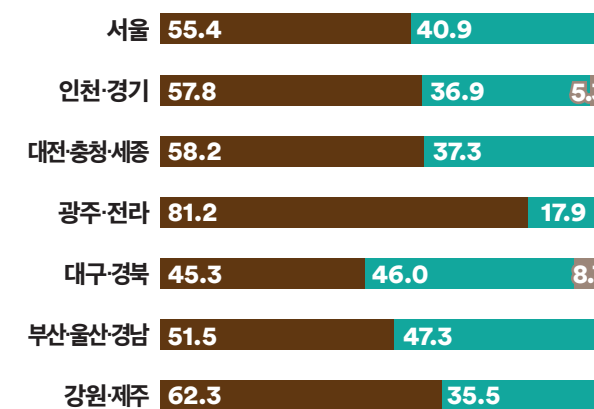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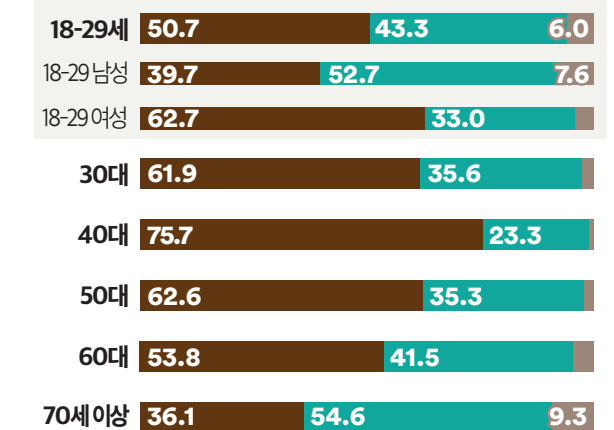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여론조사꽃 제40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

여론조사